

# 솔로몬, flex 해버린 왕

\* 10/6(수) 열왕기상 ③ 7-8장

통일왕국	분열왕국
솔로몬 1-11장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1-2장	<div>                         솔로몬의 지혜 3-4장                          ▶ 예루살렘 성전, 왕궁 건축                          5장-9:9                     </div> <div>                         · 성전 건축 준비와 공사                          · 왕궁 건축 공사                          · 성전 봉헌식                          · 여호와의 응답                          솔로몬의 또 다른 건축 사업                          9:10-28                     </div> <div>                         지혜와 부귀영화 10장                          솔로몬의 배교와 결과 11장                     </div>

## Before 줄치며 읽기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주님을 목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성막의 시대가 종결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됩니다.

## After 목상하기

내 삶의  
빛과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셨던 때처럼,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우십시오(8:11, 출 40:34-35).

### ● 빛 : 예언된 일의 성취

아들을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번제단’,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아버지가 한 완벽한 준비로,  
여호와께서 그리신 설계대로.  
다윗의 숙원이 마침내 이뤄집니다(대상 28:19, 29:2-3, 대하 3:1).

성전이 선 예루살렘은 정치적 수도이자,  
온 이스라엘의 중심, 성지(聖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불에 타버린 후에도 ‘시온’은  
영원한 민족의 고향이자, 파스한 어머니의 품입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계실 영원한 처소입니다(8:13).

‘하물며’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분이십니다(8:27).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8:30, 32, 34, 36, 39, 43, 45, 49).”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성서유니온 열왕기  
통성경 길라잡이

여호와와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수 3:17, 6:13).  
흡니와 비느하스로 인해, 블레셋에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삼상 4:3-4).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삼하 6:14-16, 6:20-21, 대상 15:29-16:1).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여호와와 궤가 성전 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8:4-6).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 건축 너머, 솔로몬의 마음을 향하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9:4-9, 삼하 7:12-17).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삼상 16:7).

#### • 그림자 : 예고된 왕의 착취

여호와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6:2, 38).  
율법에 따라, 철 연장 소리도 나지 않게, 자재를 완벽하게 만들어 와 끼우기만 합니다(6:7).  
총 18만 3천3백 명이 동원되었습니다(5:13-16).

솔로몬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레바논 수풀 궁’으로 짓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7:1-2).

솔로몬을 찾아 온 스바의 여왕은 궁전을 두루 살펴 보고,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 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 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10:4-5, 새번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구했던 지혜입니다(3:6-9).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 얻은 부를 플렉스(flex) 해버립니다. 입이 짝 벌어질 수준입니다(10:14-29).

전쟁은 여호와와 손에 달렸습니다.  
솔로몬의 군사력이 전과 달라졌습니다(4:25-28, 10:26-29).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도를 버리고, 불순종합니다(신 17:16-17).

사무엘이 경고했던 왕정 제도의 치명적 결함,  
그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웁니다(삼상 8:10-18).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열심을 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로, 실은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사실상 나의 권력을 세우고 있진 않으십니까?